

청주 건설사 대표, 수백억 횡령에 증거위조교사 혐의까지

근로자 사망 사고 은폐 위해 관련 문서 위조... 경찰 유착 의혹은 '무혐의'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한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횡령,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건설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회삿돈 259억원을 개인 채무 상환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이 시공을 맡은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 회피를 위해 직원에게 '단순 자재 납품업체'로 보이도록 계약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

도 있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인천경찰청은 위조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외에도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지인 B씨에게 '보석 재판 담당 판

사에게 로비해 석방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가 충북경찰청 소속 C 경정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 금전거래"라는 양측 주장 외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경찰과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고발

장을 접수하고 C 경정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고가 미술품 제공이나 지인의 마약 사건 개입 등의 정황에 대해서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재판에 넘겼으며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su00329@daillycc.net



교원노조·시민단체 "대전가원학교, 정밀진단 촉구" 대전지역 교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흔들림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대전 가원학교의 정밀진단과 안전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남수현 기자

보령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보령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6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실·경비함정·파출소 등 육·해상을 연계해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을 비롯한 해상 모든 선박이며, 주 조업지 및 활동시간대, 취약해역을 선별하여 안전순찰 및 집중단속 예정이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6월 21일부터 주취 중 조종 금지 대상이 무동력 레저기구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상규 서장은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윤미영 기자 ymy93@daillycc.net

이동한 대전과학진흥원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검찰이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과학진흥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의 무게를 깊이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5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부터 징역 1년까지 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수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수현 기자 su00329@daillycc.net

대전지검 '전세사기 관련'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압수수색

재판 과정에서 추가 정황 포착 대전지검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대전의 새마을금고 지점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추가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 임대차 보증금 약 100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드러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추가 혐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남수현 기자 su00329@daillycc.net

사고수습 중인 소방차 추돌

외제차 운전자 숨져 23일 낮 12시 4분께 충남 공주시 신풍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도로를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 중이던 소방펌프차(30)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MW 운전자 A(40대) 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 이송 및 사고 수습 중이었다. 사고가 난 소방차 안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소방대원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양대병원, 차세대 인공관절수술 로봇 '마코' 도입

건양대학교병원이 차세대 인공관절 수술 로봇 '마코(MAKO)'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코 로봇은 컴퓨터 기반 로봇 팔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CT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3D 해부학적 모델을 구현해 개개인의 뼈 구조, 인대 상태, 다리 정렬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수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봇수술 도입을 계기로 환자 맞춤형 정밀 수술과 빠른 회복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자마다 타고난 다리 형태가 모두 다른데, 모든 환자를 동일한 모양으로 수술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술 후 통증, 운동범위 제한 등의 불만족을 환자 개개인의 다리에 맞는 맞춤형 인공관절을 시행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코 로봇은 수술 중에도 설정된 절삭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동작을 제어하는 '햅틱존(Haptic Zone)' 기능을 탑재해, 인접한 정상 조직의 손상



맞춤형 인공관절수술 로봇 '마코' (사진=건양대병원 제공)

을 방지하고 감염 및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실시간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해 집도의가 돌발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건양대병원 김광근 교수(무릎염증·이관절센터장)는 "인공관절에서 로봇 수술은 뼈 절제 및 인대 균형을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함으로써, 환자마다 다른 무릎의 맞게 환자 맞춤형 수술을 할 때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황천규 기자 lin3801@daillycc.net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택시기사 사망케 한 10대 구속기소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12일

오전 6시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양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빙겨나간 철제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치면서, 60대 운전기사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2차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 상태로 몰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229건으로, 이 중 37%가 20대 이하의 청소년·청년층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청소년 운전과 렌터카 대여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장선화 기자 adzerg@daillycc.net

마음수침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4 아베스빌딩
전화번호 042-486-0222

무면허모개장공고 (2차)

본 분포는 [경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군청에서 개장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무면허모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포에 대해서는 무면허모로 간주하여 임의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포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기수	비고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산39	2기	
- 개장사유: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경리
- 안치장소: 영호추모공원(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 63번길 43-9)
-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합의하여 적정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신고자가 회장 후 무연고 불만당 안치
-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납골기간: 불만일로부터 5년
-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주)에스아이에너지, (주)동이에너지, 지열그린에너지(주)
 - 문의처: (주)다빈이앤씨 ☎ 042)484-1108
- 신고시 구비서류
 - 분포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명서류 등)
-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 사업구간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포에 대하여 이 공고로 일괄함.

상기와 같이 분포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위공고인: (주)에스아이에너지, (주)동이에너지, 지열그린에너지(주), (주)다빈이앤씨
(담당자 - 송병섭 ☎042)484-1108/010-3144-1654)